



김유정 문학의 시간구조 포괄적 분석 투철한 현실인식 새롭게 발견해 주목

— 「김유정소설과 시간」낸 박정규씨

이 책 그 사람

「동백꽃」의 작가로 30년대의 대표작가 가운데 한사람으로 문학사에 기록된 김유정의 문학세계를

‘시간구조’란 틀로 새롭게 분석한 책 「김유정 소설과 시간」(깊은샘)이 최근 출판됐다. 토속어가 잘 구사된 해학적 작품의 작가로만 인식돼온 김유정의 작품을 시간적 구조주의에 입각해, 주제와 시대상까지를 포괄해 분석한 이 연구서는, 자칫 하나의 평가로 굳어질 뻔한 작家的 세계를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에 적을 둔 박정규씨(47)가 논문 「김유정소설의 시간구조연구」에 몇편의 글을 덧붙여 낸 이 책은, 이제까지 소개된 시간구조 이론을 근거삼은 본격적인 연구서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결과 종전의 평가와 더불어 구조적 단단함이 김유정소설에 내재돼 있으며, 현실인식의 투철함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그의 해학성은, 시대적 특성을 감안한 작가의 방법론이었으며, 그것은 오히려 아이러니에 가깝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유정문학에서 유토피아 창조의 미래지향성이 감지되지 않았던 원인을 박정규씨는 “과거지향적인 낭만적 시간에 비중을 둔 작품의 특성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김유정은 사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세계를 가진 작가였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이 책의 1부에서 이같은 사실을 도출해내고 있는 그는, 이어 2부 ‘역사적 상황의 소설적 표출양상’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형」 「만무방」 「심청」이란 작품을 통해 김유정소설 속에 표출된

역사적 상황의 양상을 조명한다. 한편 3부에서는 김유정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인 아이러니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그는, ‘농민소설에 나타난 유토피아·추구’란 글을 통해 30년대 농민소설에 나타난 제특성을 살피면서, 김정환의 「寺下村」에서 미래지향성을 엿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석사과정에서 김유정문학에 매료되었다는 그가 30년대 우리 문학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시기가 본격문학 진입기라는 데 이유가 있다. 일제의 ‘전성기’와 민족주의자들의 도전의지 상실이 맞물린 30년대 문학을 연구하면서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학습이 무척 힘들었다”는 박정규씨는, 논문을 끝낸 뒤 91년 「문학정신」에 단편 「니느웨로 가는 길」을 발표한 소설가이기도 하다.

대학시절부터 줄곧 습작을 했었지만 기회가 없어 출발이 늦었다는 그는, “40년만에 비로소 해금된, 그래서 안타까운 선친이 남긴 업보 같은 것에 의해 꼭 써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사실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에 그를 문단에 나서게 한 것은, 문학적 열정에 앞서 불행한 작가였던 아버지 때문이었다.

피난길에도 잊지 않았던 원고를 정리해 해금과 동시에 「박노갑집집」(3권, 깊은샘)을 펴냈던 그는, 연말쯤 작품집과 「김만선론」을 펴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워낙 어려서 별 기억은 없지만, 늑골이 들려다 보일 정도로 아위었던 애뜻한 모습으로 남은, 무덤조차 없는 아버지의 생각마을 한편에 비석이라도 세우는 게 소원”이란 다.

— 최태원 기자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우리의 無知 각급교과서 15종의 잘못된 부분 지적

— 「일본은 한국역사를 왜...」낸 흥진희씨

이 책 그 사람

‘교과서 파동’으로 불리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터진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하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일본은 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일까?

미림어고 일본어교사인 흥진희씨(39)가 쓴 「일본은 한국역사를 왜 비뚤로 가르칠까」(소나무)는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역사를 왜곡 - 절대로 실수라 볼 수 없는 -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는 책의 ‘들어가는 말’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한국대통령이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갔을 때, 우리의 신문 머릿기사에는 ‘우리는 과거를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씌어 있었음을 필자는 기억한다... 우리는 과연 ‘잊지 말아야 할 과거를 알고 있는가? 용서해주어야 할 과거를 알고 있는가?’”

그가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일본의 역사왜곡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지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역사왜곡을 지적하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 15권을 입수했다. 그간 자료수집차 현해탄을 건너간 것도 10여 차례.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일본의 관계 중 일본역사교과서에 잘못 기술된 부분을 밝히고 있는 이 책을 쓰기 위해 그가 수집한 자료는 결코 적지 않다. 한 예를 들어보면, 관동대지진 때 일본은 자국민의 불만 분출통로로 한국인을 끌어들이었으며 이로

인해 9천명 내지 1만2천여명의 한국인이 죽음을 당하는 참상을 겪게 했다. 일본은 단순히 ‘유언비어가 떠돌았다’는 말로 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유언비어의 진원지는 아직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당시 일본 후나바시 해군무선소에서 타전된 전문을 살펴본 흥진희씨는 이 사건이 “극심한 지진의 피해로 불안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던 일반대중에게 정부측에서 한국인의 살상을 조장하고 명령한 것”이라 단정하고 있다.

흥진희씨가 3년여동안 자비를 들여가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상기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있다. “6·3때 우리는 일본에게서 배상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이라는 차관을 받았다”는 그는 배상받아야 할 돈으로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들의 피해보상액을 비롯해서 당시 일본은행에 저축한 우리들의 돈과 국내 징용자 노동임금, 파괴된 문화재 등의 배상금”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배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를 확실히 밝혀 잃었던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실임을 그는 직시하고 있다.

원점으로 돌아가 이 책의 질문 “일본은 한국역사를 왜 비뚤로 가르칠까?”라는 질문을 저자 흥진희씨에게 던져보았지만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열등한 민족의 열등감 감추기.” 이것이 전부였다. 덧붙여 흥진희씨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줄 사람들을 찾고 있다(전화 717-5195, 마포구 현석동 166번지). 수요일 12시만 되면 정신대문제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흥진희씨의 책은 “과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또다시 던지게 한다.

— 이성수 기자



자전적 평전 성격 짙은 연작장편소설 '마침내 글을 쓰는' 주인공 삶 형상화

— 「생의 이면」낸 이승우씨

이 책 그 사람 인간의 내면세계를 종교적 사유를 통해 깊이있게 천착해온 소설가 이승우(34)씨가 또 한편의 장편 「생의 이면」(문이당)을 펴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상의 양식」 「연보를 완성하기 위하여」 등 5편의 중·단편으로 구성된 연작형식의 이 작품은 유년시절의 영혼의 내출혈이 한 인간의 성장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話者와 '박부길'의 교차되는 시점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소설가인 박부길에 대한 평전 형식을 취하고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은 자전적"이라고 공표를 함으로써 「생의 이면」은 독자들에게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기록으로 읽혀 주목을 끈다. 이씨는 그러나 "디테일한 측면은 모두 허구"라고 밝힌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왜곡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자전적 성격의 소설에서 "비밀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작가 개인의 삶의 이력을 읽어내는 것은 독자 고유의 권한"이라는 데까지는 양보한다. 그는 '이면'의 반의어로 '표면'과 '정면'을 든다. '이면'은 결국 '내면'과 '측면·배면'의 통칭이라는 것이다. 작가가 끝내 숨기고 싶은 '이면의 진짜 이면'을 들춰보고 싶은 것은 독자의 온당한 욕망이며, 그 욕망이야말로 형이상학적 주제를 "내 냄새가 난다"는 문체로 그려낸 이 소설을 끝까지 읽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큰댁의 뒤란에서 발목에 차꼬를 채인 채 살아가는 사나이가 정신분열증을 보이는 자신의 아버지임을 눈치채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전개된다. 발톱을 깎듯 손톱깎이로 동맥을 절단한 아버지는 "부끄러움의

뿌리이고, 치욕과 증오의 원천"이 된다. 아버지의 무덤에 불을 지르는 것으로 殺父의 제의를 마친 박부길은 入, 社와 出, 世를 하지만 "대인공포증이 아니라 대인혐오증 내지는 대인기피증"의 '환자'가 되어 세상으로부터도 스스로 격리된다. 청년 박부길에 할 수 있는 일이란 독서뿐이었다고 소설은 말한다. "그에게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버릇"이라는 것이다. 이어 종교체험 같은 여자체험을 하게 된다. 한 연상의 여인을 "운명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이렇게 표현된다. "나는 그때 이미 합리주의자가 아니었다. 신비를 체험한 자였고, 聖의 감각을 맞본 자였다. ...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歸依의 대상이었다"고. 교회의 교사인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하여 신학교에 입학했으나 "가학적"이고 "불구적"인 성격 때문에 파경을 맞게 된다. "어느날부터인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줄거리로만 보자면 다소 '엽기적'인 전반부에 비해 한 여인을 만남으로써 신을 발견케 된다는 「지상의 양식」은 다른 부분보다도 한층 肉質의 감각의 깊이를 획득하고 있어 그의 첫사랑의 감정과 신학대학 입학의 한 계기를 '억측'해볼 수도 있다. "속도도 안 나가고 방어적 글쓰기가 된 부분"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진지함의 결여는 글쓰기의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이승우씨는 그러나 최근들어 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글쓰기에 대해 회의한다. 전업작가이면서 아마튜어식으로 산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문학의 위상이 변하기도 했거니와, 26개월 된 아들 한서를 겨안을 땀 "세상도 겨안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 김중식 기자



낮익은 정서의 신선함 돋보이는 첫시집 경박한 새로움과는 거리 먼 시세계 보여

— 「먼지의 집」낸 이윤학씨

이 책 그 사람 이른바 '신세대문학'은 반드시 새로워야 하는가? 연전부터 이들 문학에 쫓겨가기 시작한 해체, 키췌, 신서정 등의 개념은 작가나 독자 모두에게 잠재해 있는 새로움에의 집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인 이윤학씨(28)의 첫시집 「먼지의 집」(문학과지성사)은 '신세대'의 시집임에도 불구하고 예의 새로운 징후와는 거리를 둔, 우리에게 익숙하고 낮익은 풍경과 정서를 간직함으로써 오히려 돋보이는, 역설적인 새로움을 내보인다. 도시문화와 영상문화에 탐닉하거나 적어도 그것들을 자신의 문학적 대상으로 삼으려는 같은 연배의 시인들에 비해 小韻과 탄불, 냄비, 라면 같은 "답답(한) 추억의 부장품들"이나 "마른풀 냄새나는 저녁", "문짝 떨어진 부엌", "과리똥 찍힌 앞전구" 등에 대해 말하는 그의 시편들은 이제, 고답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다가온다. 평론가 김주연씨의 지적처럼 "새로운데도 불구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지 않는" 그의 시의 이 '이상한 새로움'은 그래서, 우리가 편승한 변화의 가속도의 시대에 새로움의 상대성을 절감케 한다.

그러나 막상 이윤학씨 자신은 이즈음의 젊은 시인들의 작품이 자꾸 가볍고 경박해지는 경향을 경계할 뿐이라고만 한다. "의도적으로 저의 체질을 변화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가난한 고향에서 싹튼 정서는 도시생활에 길들여진 지금에도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밝음보다는 어둠 속에서 거듭 절망하며 힘겹게 삶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한 것이죠."

개구리, 달팽이, 구더기, 파리, 잠자리 등

작은 짐승이나 벌레들에 빚든 시적 자아가 보여주는 "얼굴을 내밀고 살고 싶어하는" 정도의 낮은 꿈이나 "습기 올라와 꽃 마르지 않던" 반지하의 잠만 자는 방이 상징하는 가난 이전의 암울한 생활, 가을까진 농사일을 하고 겨울에는 바닷일을 했던 충남 홍성군 근방의 고향 판교리에서의 "단무지처럼 노랗게, 아득하게 흘러간 날들"에 대한 회억 등 그의 시어는 한구석에서도 مطمئن 웃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자칫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모든 정서들은 그의 체험과 기억에 근거한 구체적 정황과 대상을 통해 묘사됨으로써 더욱 절실함을 얻는다. 그렇다고 그의 시가 가난이나 소외, 잘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대화적 발언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저 "살아남은 자는 약하다. 그래서 울음주머니가 필요하다"는 그의 생애적 정서에 충실할 뿐이다.

"데뷔할 때나 지금이나 제 시와 생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달라져봤자 뻔하겠지요. 생활에 부대끼며 진지하게 시에만 매달리는 시간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편 한편 꼼꼼하게 쓴 시를 발표해야 하는데..."

이 원론아닌 원론은 기억력 좋은 사람들에게, 지난 90년 신문문에 당선 직후 말없이 내미는 두툼한 습작노트를 그의 성실함의 징표로 꼽았던 당시 담담기자의 인터뷰 기사를 문득 떠올리게 한다. 별다른 자기설명이 없는 과묵한 시인이 밝히는 자기시의 출발점은 "시를 통한 구원"이었고, 지금은 '죽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 정소연 기자